

대한산업안전협회, 제4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술세미나 개최



»»» 2007. 7. 4일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백일천)는 제4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백일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 전국 안전보건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의 New Trend"란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성과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식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발표하여 안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현판식 행사 개최



»»» 2007. 7. 9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정규중)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하고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 대전지방노동청 김명룡 청장, 삼영기계 한금태(전 지회장)대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홍천기 본부장, 대전중앙병원 금동인 병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 김구중 본부장 등 유관기관 및 안전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안전관리자들 '진로' 안전관리 벤치마킹

》》》 2007. 7. 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지회장 김만웅)는 제4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관내회원사 안전관리자들(삼양제백스외 31명)과 함께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안전보건대회 및 세미나와 국제 안전기기 전시회를 관람하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인 '진로' 충주공장에서 우수 안전관리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참여식 안전교육 시범교육 실시

》》》 2007. 6. 27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지회장 김종원)는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원 26명을 대상으로 '참여식 안전교육'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범교육을 마친 후 설문조사에서 참석자 전원이 안전교육에 참여식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루한 안전교육을 즐겁게 받을 수 있었다.", "안전교육기법으로 활용하면 기대 효과가 높다.", "교육받으며 지루함을 못 느꼈다." 등 이론교육 및 통신교육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크레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2007. 6. 20~21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지회장 오세동)는 경남서부지회교육장에서 관내 크레인 취급자를 대상으로 중량물취급, 크레인 안전기준 및 걸고리 와이어호프 및 비상정지장치 기구 점검 등 전문지식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부, 2007년 재해예방기관 연찬회



》》》 2007. 7. 19~20일 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노동청, 지청 산업안전과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19개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한화콘도에서 2007년 재해예방기관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 추세와 관련 “재해를 감소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공단, 단체, 학회, NGO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한계점 돌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명을 대표해 이후현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용국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국장, 김성철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국장은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서부지청,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 동참 길거리 캠페인



》》》 2007. 6. 29일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내 건설현장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공덕 지하철역부근에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공덕지하철역 부근에서 왕래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관련 팸플릿 등 각종 자료를 나눠주면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 운동 동참을 호소하였다.

서울북부지청, 동대문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의체회의 및 현장 합동점검 실시



》》》 2007. 7. 19일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노·사 자율안전체제 구축 및 관내 건설업 재해 감소를 위해 구성된 동대문구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의체 회의 및 현장 합동점검을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문 대한생명 신설동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석철 지청장은 관내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절기 고열작업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 및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자료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였다.